

보도시점 7. 17.(목) 조간 < 7. 16.(수) 12:00 >

혁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대기업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거대언어모델(LLM) 챌린지」 사업 7월 17일 공고
- KT, 오라클 등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AX) 사업화 협업 추진
-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20개사 공동 발굴, 기술검증(PoC), 협업 자금 등 지원
- 우수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은 대기업 보유 세계적(글로벌) 판매망 등을 통해 신규 판로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기업의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인프라)을 혁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개방하고, 협업을 통해 도메인**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상용화하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거대언어모델(LLM) 챌린지」 사업을 17일(목) 공고한다고 밝혔다.

* LLM(Large Language Model) :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

** 도메인(Domain) : 특정 산업이나 영역, 범위

이번 공고는 산업과 기업에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주도의 인공지능전환(AX) 공급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동시에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신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제조,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

언어모델(LLM)에 기반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며, 기존 산업의 경쟁 구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을 원하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인프라)을 보유한 세계적(글로벌) 거대기술기업(빅테크) 기업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현장의 지속적인 협업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2차 추경에 동사업을 신설하였다

이번 챌린지에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KT, 네이버 클라우드, 오라클 등 세계적(글로벌) 대기업 3개사가 참여하여 총 19개 인공지능 전환(AX) 과제를 공모하며, 과제에 신청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총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별 협업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세계적(글로벌) 대기업의 주요 과제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KT

자사 거대언어모델(LLM)인 ‘믿:음 2.0’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보안 솔루션, 리포트·콘텐츠 생성 AI시스템(Agent) 개발 등 5개 과제에 참여할 6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거대언어모델(LLM) 활용 등 개발 환경, 사내 인공지능 시스템(Agent)과의 기술검증(PoC) 기회,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Cloud Test 환경 등을 제공하며, 우수 기업에는 KT 외부사업 연합체(컨소시엄) 참여 기회와 공동 사업화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네이버 클라우드

자사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 클로버(HyperCLOVA)X를 활용하여 제조 현장의 고도화된 데이터 기반의 판매·제고·수요 예측 인공지능 시스템(AI

Agent) 개발 등 8개 과제에 참여할 8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네이버 Cloud 크레딧, 오피스 아워, 기반시스템 구조(인프라 아키텍처), 보안 전문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마켓 플레이스 입점 기회, 매칭된 협력 기업의 솔루션 도입 등 신규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③ 오라클

자사의 OCI Generative AI*를 활용하여, 산업별(제조, 금융 등) 인공지능(AI) 특화 솔루션 개발 등 6개 과제에 참여할 6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

* 검증된 타사 LLM 모델을 자사 인프라에 최적화하여 API 형태로 제공하는 모델

창업기업(스타트업)에 AI Service Cloud Test 환경과 전문상담(컨설팅), 기술검증(PoC)을 위한 Cloud 크레딧 등을 제공한다. 우수 기업은 세계(글로벌) 마켓 플레이스에 솔루션을 등록 지원하고, 국제적(글로벌) 협력사(파트너사)를 통한 기업간 협력(비즈 매칭) 등 세계적(글로벌) 판로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7월 17일(목)부터 8월 6일(수)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 (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공고 이후, 국내 유망 인공지능(AI) 반도체설계전문 기업(팹리스)의 NPU*를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활용하여, 특정 기업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 NPU(Neural Processing Unit) :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전용 프로세서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원천 기술을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

업)이 활용하여 기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협력(매칭) 및 기술사업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과 산업과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데이터 기반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산업과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 유리한 환경이다.”면서,

“이제 인공지능(AI) 분야 경쟁은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했냐 보다는, 누가 더 빠르게 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냐의 싸움으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주도의 인공지능 전환(AX)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괄 부서	창업벤처혁신실 신산업기술창업과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640)
		담당자	사무관	박종선 (044-204-7683)
			주무관	김경은 (044-204-7650)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딥테크육성팀	책임자	팀 장	이명종 (044-410-1680)
		담당자	차 장	구자훈 (044-410-1687)